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지혜서가 말하는 순교자

“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지혜 3,1-3)

”

지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의인들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며, 구약성경에서 영혼 불멸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몇 안 되는 대목 중 하나.

지혜서 저자는 영혼이 불멸하기 때문에 의인들에 대한 보상이 하늘에서 주어지리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

나중에 하느님께서 의인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은 억울한 죽음을 맞은 이들이 아니라 주님께 선택받은 이,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가득히 입은 거룩한 이들(지혜 3,9)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을 환호하며 거두리라.

(시편 126,5 - 오늘 화답송)

”

바빌론 유배라는 귀양살이를 끝내고 돌아오는 이들이 외치는 노래로 자신들을 풀어주신 하느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

주님께서는 하늘에서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당신을 따르는 의인들에게 보상해 주신다.

“

죽음도, 삶도, ...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 8,38-39)

”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의 편이시기에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1베드 4,14 - 오늘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행복하다"라고까지
선포하는 이유를 복음 환호송과 복음에서 찾아보면,

- 1) 하느님의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실 것이기 때문이고,
- 2) 사람의 아들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 3) 그를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해와 순교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가?
박해를 찾아서 떠나야 하는 것일까?

순교자 폴리카르포 성인에게서 배우는 가르침

폴리카르포 성인 시대의 잘못된 순교 신심

1) 순교해야 천국에 간다 생각하며 스스로 로마 행정관들을 찾아감

=> 순교 직전에 배교

2) 순교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로 생각함

“

순교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지,

자기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일부러 박해를 찾아나서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길이 아니다. (성 폴리카르포)

”

폴리카르포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힌 후 화형에 처해졌는데,

그의 몸이 타지 않자 사형 집행인은 그를 단도로 찔렀다.

그러자 그의 몸에서 많은 양의 피가 나와 불을 꺼버렸고,

결국 그는 숨을 거두었다.

한국의 순교자들

한국의 순교자들은 스스로 먼저 순교하러 나서기 보다는
오히려 **최대한 복음을 간직하고 살기 위하여 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의 고발에 의해 잡혀 가 순교하셨다.**

오늘날의 순교

“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루카 9,23)

”

예수님께서서는 일상 안에서 **날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가르치신다.

또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지 않고

자신을 버리고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신다.